

보성군, 내년 본예산 7290억 ‘역대 최대’

군의회 2차 본회의 통과... 올해비 9.35% 증가

7000억 첫 돌파... 민생 안정·균형 개발등 집중

전남 보성군이 군 재정 역사상 처음으로 본예산 7000억원 시대를 열었다.

군은 지난 16일 열린 제31회 보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본예산 7290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규모는 2025년도 본

예산 6666억원보다 623억원(9.35%) 증가한 규모로, 보성군 본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원을 넘어선 사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11.13% 증가한 6350억원, 특별회계는 1.27% 감소한 940억원으로 편성됐다.

2026년도 세입은 지방세 267억원, 세외수입 202억원, 지방보부채 2750억원, 지방소발매대금 72억원 등을 반영했다.

2026년도 본예산은 ▲군민 생활 안정 및 돌봄 체계 강화 ▲농림·축산·해양수산 경쟁력 제고 ▲문화·관광 기반 확대 ▲생물 안전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 ▲균형 있는 지역개발 등 5대 핵심 분야에 재정 역량을 집중해 편성됐다.

군민 생활 안정과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지원사업 130억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3억원 ▲부모급여 지원 16억원 등을 반영했다.

농림·축산·어업 분야에는 ▲친환경 비료 지원사업 31억원 ▲나지목장 조성 및 병고파라 리본 프로젝트 11억원 ▲고품질 가루 녹차 상급사실 조성 10억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지원기반 구축 6억원 등을 편성해 농수산업에 소득 기반과 미래형 농수산업에 주축한다.

보성=황승준 기자 whng04@siminilbo.co.kr

‘영암-올케어’ 통합돌봄사업 계획 확정

군, 사는 곳 중심 의료·요양·주거·일상 통합 지원

대상자 발굴·판정·서비스 제공·모니터링 연계도

전남 영암군이 최근 군청에서 ‘통합지원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영암군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사는 곳에서 받는 등의 성과 목표를 담은 2026년 통합돌봄사업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군은 ‘모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돌봄, 영암-올케어(All Care)’를 비전으로 돌봄이 필요한 군민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

·주거·일상생활 지원을 통한 연계하는 영암형 통합돌봄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자 발굴부터 통합 판정, 지원회,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까지 돌봄의 전과정을 한 흐름으로 묶어 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운영하는 체계 구축이 목표다.

이를 뒷받침하는 영암군 통합지원협의체는 행정, 보건, 의료, 복지, 주거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지역 통합돌봄 계획 수립·평가 ▲시책 자료·조정 ▲관계기

관 연계·협력 ▲민·관 자원 발굴 및 협력 강화 등을 맡는다.

이번 협의체 부위원장으로 이상현 영암지역사회발전재단이, 위원으로 김근수 영암군의회 사정, 장승희 동아보건대 교수 등이 위촉을 받았다.

이러한 정기회의에서 협의체 위원들은 영암군의 ‘2026년 통합돌봄사업 실행계획(안)’ 최종 심의·의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심의·의결된 실행계획에는 ‘통합돌봄 신청자 재가 거주율 80% 이상 달성’ 등 성과 목표와 노인·장애인·피원한자 우선 지원 방향 등이 담겼다.

영암=정찬길 기자 jcrs@siminilbo.co.kr



기업성장 성과공유회

경북 구미시는 지난 16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대목적홀에서 '2025 구미시 기업성장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김경호 시장(앞줄 가운데)과 기업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5%+5%’ 지역화폐 특별할인

순천시, 19~31일 연말 이벤트

전남 순천시는 연말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모바일 순천사랑상품권 크리스마스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선할인 5%와 후(後) 캐시백 5%를 더한 총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시민들은 모바일 순천사랑상품권을 구매하는 즉시 5% 선할인을 받고, 사용 후 추가로 5% 캐시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캐시백 5%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어 시민들의 빠른 참여가 필요하다.

시는 이번 행사가 크리스마스와 연말 소비 성수기와 맞물려 지역내 소비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올해 20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자금의 역의 유출을 막고, 금융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었다.

순천=이문석 기자 lms@siminilbo.co.kr

청양군, 결핵관리사업 ‘도지사표창’

경로당 찾아가는 검진등 호평

의심자 조기발견등 전파 예방

충남 청양군보건소의료인이 올해 국가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충청남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충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며, 지역 주민들의 결핵 예방과 관리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 ▲치료 성공률 ▲접촉자 관

리 ▲위탁업체 검진 등 결핵 관리의 전반적인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의료인은 특히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노인과 외국인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선제적인 결핵 예방과 관리에 크게 기여했다.

군은 ‘2025 찾아가는 어르신 결핵검진’ 사업을 통해 고향와 지역 특성에 맞춘 결핵 예방에 앞장섰다. 지역 특성상 의료 접근성이 낮고, 상대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의 인구 비중이 높아 결핵 발생이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았다. 이에 의료인들은 마을화관(경로당)을 중심으로 직접 찾아가 결핵 검진을 실시하며, 65세 이상 노인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켰다.

이 사업은 대한결핵협회 대전·충남지부와 협력해 흉부 X-선 검사를 통해 결핵 의심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추가 검사와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지역 사회와 내 전과를 예방하고 결핵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했다.

청양=최복규 기자 cbg@siminilbo.co.kr

스크린에 담은 진도군의 풍광·매력

‘결혼해줄래’ 내년 상반기 개봉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일환

전남 진도군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하나로 제작한 영화 ‘결혼해줄래’를 오는 2026년 상반기에 개봉할 예정이다.

17일 군에 따르면 영화 ‘결혼해줄래’는 진도의 풍광을 배경으로 학령과 사회적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 여성의 삶과 사랑,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자유와 성장을 그린 작품이다.

영화 속 주인공 ‘수연’은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 진도로 돌아와 타인의 삶과 아픔을 마주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해 나간다.

이 작품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사랑과 삶을 치유하는 과정을 담아내려 진한 일상에 위로와 감동을 전한다.

영화는 장안복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배우 문준(수연 역)과 이상현(준호 역)이 주인공으로 출연해 섬세한 감정 연기를 선보이고, 배우 박재관(동식 역), 원주연(서희 역), 황지현(유리 역) 등이 출연해 우정과 지역공동체의 따뜻한 관계를 그려냈다.

특히 영화에는 진도의 농특산물을 대표하는 지역 농특산물 ‘진도온(JindoON)’이 등장하는데, ‘진도온(JindoON)’은 언제나 밝게 불을 밝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진도=황승준 기자 whng04@siminilbo.co.kr

해남군, 아·테 AI 협력기반 구축 박차

AI4APAC과 협력로써 개최

농업·기후산업 활용사례 공유

전남 해남군은 17일 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 협력포럼 2025 (Global AI Collaboration Forum 2025)’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군이 주최하고 AI4APAC과 공동 주관한 국제 협력 행사로,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과 한국을 연결하는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구축과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AI4APAC은 책임있는 AI, 데이터 전략과 생산성 혁신을 중심으로 기업·정부·학계와 협력해 미래 지역의 AI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최근 한국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해남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

이번 행사에는 호주, 한국, 등

남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글로벌 AI 전문가 5명과 군, 기업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AI 협력을 통한 APAC-한국 혁신 브릿지 구축’을 주제로 AI 기술의 산업 적용과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포럼은 분야별 전문가 기조연설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양식을 위한 AI ▲미래 산업·에너지 시스템에 위한 AI, 로보틱스와 자동차 ▲기후 혁신 산업을 위한 인간 중심·책임 산업을 위한 AI ▲미래세대인재 양성, 오존층 파괴 현상 인포라 등 분야별 주제 발표와 전문가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특히 해남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농업·기후 혁신 산업과 연계한 AI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 기술 적용 가능성과 산업 확장 전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해남=정찬길 기자 jcrs@siminilbo.co.kr

23일 광역거버넌스 교류 공연

홍성군, 충주·세종시와 맞손

충주문화관광재단 홍성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오는 23일 가족이웃들부터 5층 나래홀(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향로 48 5층)에서 2025 광역거버넌스 교류 공연 ‘지역을 잇다’·예술이 흐른다’와 함께 ‘문화도시 홍성 성과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충청권인 홍성·충주·세종 각 지역의 전문예술단체가 참여해 공연으로 기획한 광역연대 공연으로, 예술을 매개로 도시 간 연대와 협력의 과정을 무대 위에서 구현한 장르융합 공연이다.

성악, 뮤지컬, 연극, 밴드 등 서로 다른 장르의 예술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며, 각 지역이 지닌 문화적 정체성과 강점이 하나의 서사로 펼쳐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연에는 홍성의 아र्ट비, 아티스트, 아티스트, 충주의 강변문화 파인트리, 세종의 현악 5중주 디네티에 참여한다.

홍성=최복규 기자 cbg@siminilbo.co.kr

간추린 뉴스



산청군 보건의로원 관계자들이 임시주거시설에 거주 중인 이재민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산청군, 산불·호우 이재민 지속 의료 지원

경남 산청군은 대형산불과 극한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에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임시주거시설에 거주 중인 이재민의 건강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2인 1조 운영체제를 구축, 주 1회 감염병 예방활동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12일에는 생비만관 상능마을 이재민 등이 거주하고 있는 스타모텔을 비롯해 임시주거시설 5곳을 찾아 1대 1 건강상담과 열악·혈당 측정 등을 진행하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살폈다.

도 공동생활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발열, 기침, 설사 등 감염병 의심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손소독제, 마스크, 해충기피제 등 방역물품을 배부하며 개인 방역 수칙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군은 앞서 추석맞이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재민 건강관리 지원에 힘쓰고 있다.

특히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증상자 모니터링, 하이라인 등을 운영 중이다.

산청=이명수 기자 lms@siminilbo.co.kr

전남도, 연말까지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상환

전남도가 오는 31일까지 브로어간 2025년 전년도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상환 기간을 운영, 도민 권리 보호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각종 인허가, 계약 등 내 가지 유형의 행정처분시 의무적으로 매입되는 채권이다. 이를 통해 조성된 재원은 지역개발사업에 활용된다.

이번 일제상환은 발행 후 5년이 지나 원금 상환이 가능한 2020년 12월말부터 2021년 11월까지 발행된 미환급금이 대상이다.

특히 2010년 12월 미환급금 700여만원은 오는 31일까지 상환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미환급금은 NIS(나이스뱅크) 앱에서 ‘지역개발채권’을 검색해 ‘미상환채권 조회·상환’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농협은행 지점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해도 조회할 수 있다.

남도=황승준 기자 whng04@siminilbo.co.kr

아산시-코녕정밀소제, 산학협력 MOU 체결

충남 아산시와 코녕정밀소제(주)가 지역 산업 생태계와 산학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공식화했다.

아산시는 지난 16일 오전 10시30분 시청 집무실에서 코녕정밀소제(주)와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양 기관 관계자 8명이 참석했으며,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인재 고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아산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지역내 교육기관과의 산학프로젝트 확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 강화 ▲기업 홍보 및 생산 제품 판로 개척 지원 ▲가능한 분야에서 지역 기업 제품·지역 농산물·지역화해 우선 활용 등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다양한 상생 협력 과제가 포함됐다.

아산=박명수 기자 pms@siminilbo.co.kr

경남도, 진주 월아산서 산불진화 통합훈련

경남도는 17일 오전 10시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서 산불 재난 현장 대응력 향상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2025년 산불진화 통합훈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월아산 숲속의 진주 일원에서 입산자 실태조사, 산불 진화훈련, 진화조별 탐색과 조속 5m/s 바람을 타고 산불이 확산하면서 산림재해조사실 등에 피해를 주는 상황을 가정해 유관기관 각 입부 분야와 군도를 통해 산불 재난을 대응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했다.

영광군, 돌절기 발주 건설공사현장 안전점검

전남 영광군은 최근 공사에서 발생한 철재 구조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돌절기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6일 돌절기 발주 건설공사 현장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저온·결빙 등으로 인해 구조물 안전성 저하와 작업 중 붕괴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군에서 발주한 주요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추진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철재 구조물, 거푸집, 토목비 등 가설구조물 설치·해체 적정성 ▲하중 관리 및 구조물 지지 상태 ▲돌절기 콘크리트 양생 및 품질관리 실태 ▲근로자 안전교육 및 보호구 착용 여부 ▲결빙, 낙상, 화재 등 돌절기 취약 요소 관리 실태 등을 ▲철거 구조물 등 구조물 붕괴 위험이 우려하고 있는 공정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작업 중지 및 보완 조치할 방침이다.

영광=장영수 기자 jay@siminilbo.co.kr